

교회 소식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주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과 가정,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영상 및 홈페이지 관리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및 영상 조작, 영상 제작, 홈페이지 관리)
- 오늘 간식으로 섬겨 주시는 최병식, 노미라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TBA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금):** 6pm, YouTube
- **토요새벽기도:** 6pm, 아몽크 본당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pm
- **중 · 고등부 (Youth Group) 예배:** 2p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 (EM/Youth)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간구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의와
- 화평이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3권 20호

2023년 5월 14일

<2023년 문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

주소: 448 Bedford Road, Armonk, NY 10504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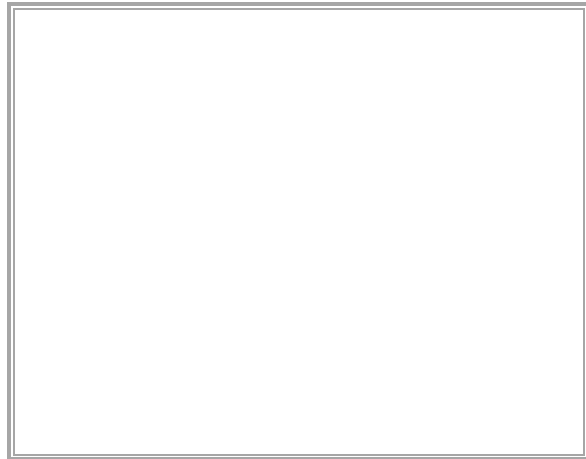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Leader
 Sermon-----Pastor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서영수 장로
 예배를 위한 묵상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예배로의 초대 -- “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함께
Call to Worship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35 (50) “큰 영화로신 주” ----- 다함께
Hymn Great King of Glory
 대표기도 ----- 시 66:8-20----- 함인옥 집사
Prayer Psalm 66:8-20
 찬양----- “어머니의 넓은 사랑” ----- 성가대
Praise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성경봉독 ----- **요한복음 21:7-14**----- 인도자
Word of God John 21:7-14
 설교----- “와서 먹으라”----- Pastor Edwin Kim
Sermon Come and Eat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 563(411) “예수 사랑하심을”----- 다함께
Hymn Jesus Loves Me, This I Know
 *주기도문 ----- 다함께
Lord's Prayer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4월 30일 설교 말씀

들을 때가 오나니 (요 5:19-29)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고 믿는 자는..” “들을 때가 오나니.” 잘 듣는 것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자와 청자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뤄지는 말씀입니다. 취사선택해서 듣거나, 들을 지를 판단할 말씀이 아니고, 주권자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라도 듣고 일으켜질 말씀입니다.

그 권위를 아들에게 맡기셔서 하시는 일은 살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살리심 같이.” 듣고 살아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같은 말도 사랑해서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그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생명이 말씀이 되기도, 죽음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신다는 예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요 죽여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늘 듣던 말씀도, 아니 심지어 설교하던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하면 의심되기도, 혼란스럽기도, 나와 상관없게도 여겨집니다. 말씀이 홀연히 밝히 깨달아지는 때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입니다. 얼핏 우리 정신이 맑을 때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찾으실 때입니다.

심판하신다는, 구원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돼서 믿을 수 없지만, 어찌 그리 능력있고 사랑하시는지 말이 안되기에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났고자 하느냐? 믿음으로 들을 때 “나기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죄와 병의 현실 속에서 새 걸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부담과 핑계 대신 예! 대답하게 합니다.